





## 살라피 지하디스트의 탈-알카에다 중심화와 보코하람, IS에 대한 분석연구

김은영\*

### 〈요 약〉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 안보에 큰 위험인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운동의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인 탈-알카에다 중심화에 대한 분석과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IS, 즉 "이슬람 스테이트(The Islam State: 이하 IS)"와 보코하람(Boko Haram)의 두 테러집단의 위험성 및 테러네트워크의 관계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와 같은 연구 분석을 위해서 이 연구는 IS와 보코하람의 다양한 문헌분석을 통해 이들 집단들의 일반적 특성과 네트워크적 특성을 분석하고, START center의 GTD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들 집단의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988년 알카에다가 설립된 이후로 글로벌 지하디스트 테러집단의 테러활동과 그 네트워크는 약 네 차례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이해되며 현재의 네 번째의 과정에서는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살라피지하디스트 테러운동이 지역분권화과정을 겪고 있는 있다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적 분권화는 IS와 보코하람으로 대표되는 극단적 살라피 지하디스트 집단에 의해 이끌어져 가고 있으며, 이들지역분권화된 지하디스트 테러집단은 작은 단위의 테러집단화로 인해서 글로벌 지하디즘의 목표를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취약성르 가지지만, 동시에 현재의 국제사회 더 큰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몇 가지 강력함을 가지게 되었다고 분석되었다. 이들 집단들이 내포하고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해 연구에서 설명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의 대상인 IS와 보코하람의 활동과 네트워크, 그리고 위험성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살라피지하디스트 테러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하고 가까운 미래의 전 세계의 대테러 안보전략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탈-알카에다 중심화(decentralization of al-Qaida central),  
이슬람 스테이트(The Islam State: IS), 보코하람(Boko Haram),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조직, 중동과 아프리카지역 테러

\* 가톨릭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범죄수사학과 조교수

목 차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서 론</li> <li>II. 살라피 지하디스트 운동의 분권화특성</li> <li>III. IS와 보코하람</li> <li>IV. IS와 보코하람의 관련 국가 및 테러조직들과의 관련성 분석</li> <li>V. 논 의</li> </ul> |
|--|

## I. 서 론

1980년대 후반, 살라피 지하디스트(Salafi-jihadist)를 대변하고 있는 알카에다가 설립된 이후로 글로벌 지하디스트 테러집단의 테러활동에 대한 소식과 위협은 끊임이 없으며, 현재는 이들로 인한 안보의 위협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격렬하고 위협적이다. 실제로 지난 30여 년간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들에 의해 이끌어져 온 글로벌 지하디스트 테러운동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이러한 성공과 실패를 파도의 웨이브에 비교가 되곤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성공적 웨이브를 보여주고 있는 시기를 2001년 9월 11일의 미국의 본토에 대한 알카에다의 테러공격 이후로 보고 있다. 이때의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들의 위협은 이전의 어떤 때보다도 위협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주도아래 곧 이어 이루어진 수차례의 공습을 거치면서 알카에다 등의 핵심적이며 상징적인 리더들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지에서 사망하면서 이러한 위협적인 활동은 기세가 꺾이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2003년 이후, 두 번째 성공의 웨이브를 보여주는데,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이라크, 마드리드, 런던, 그리고 카사블랑카 등지의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의 테러사건들이 줄이어 발생하면서 살라피 지하디스트의 파괴적인 테러활동이 다시 수면위로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역시 영국과 미국의 연합군사작전 및 정보작전 등으로 인해서 2006년 이 후, 이러한 테러집단의 활동이 감소하게 된다. 그

후에 다시 나타나는 세 번째 성공의 웨이브는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적극적인 테러공격을 감행하였던 알카에다 인 더 아라비안 페닌슐라(al Qaeda in the Arabian Peninsula)의 활동시기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들 집단의 활동의 피크도 알카에다의 정신적 리더인 오사마 빈 라덴의 2011년 사망과 그 외의 알카에다 인 더 아라비안 페닌슐라의 리더를 포함한 주요 리더들의 사망과 함께 다시 한 번 활동의 감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Jones, 2014: p. 1).

현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야흐로 네 번째의 성공적 웨이브를 타고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의 네 번째의 피크를 이끌어 내고 있는 테러집단의 주역들은 바로 현재의 명칭은 IS(the Islamic State) 즉, “이슬람 국가”와 테러집단인 보코 하람(Boko Haram)이다. 이들 두 집단은 모두 수니종파의 살라피 지하디스트 집단으로 매우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무슬림 형제단의 이념에서 출발한 알카에다의 이념적 극단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두 집단은 유사한 이념적 배경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한 매우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테러활동을 감행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연합 국가들이 이들 테러집단의 활동을 막기 위한 다양한 군사적, 정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과정 중에 발생하고 있는 난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지리적으로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있으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서 현재의 IS에 대한 공습에도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등의 관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의 위협과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전투에서 대한민국이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지하디스트 운동이 점점 더 위협해지는 원인과 현재의 지하디스트 운동을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테러집단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지식의 축적과 위협성 분석은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안보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관점의 테러연구와 계량적 방법을 사용하여 테러집단의 위협성들을 분석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김은영, 2013; 2014; 박준석, 2008; 윤민우·김은영, 2012; 윤민우, 2013; 윤민우·김은영, 2013). 그러나 국내의 연구 중 IS와 보코하람(Boko Haram)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학문적 연구의 논문이 출간되지 못한 것이 이러한 분야의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살

라피 지하디스트 집단으로서 네 번째의 테러집단들의 활동의 위협을 끌어 올리고 있는 IS나 보코하람에 대해서는 외신을 통한 뉴스 등을 통한 정보만이 접근가능한 정보로서 제시되고 있을 뿐, 국내의 전문적 분석자료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IS나 보코하람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위협적인 파괴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생의 테러집단들이기 때문일 것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테러와 관련해서는 경험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데이터의 특성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IS와 보코하람의 이념, 특성, 활동의 특성, 그리고 관련성 등에 대한 문헌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이들 두 테러집단의 테러의 위협성을 경험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우선 미국 정부 및 관련 연구기관 분석자료, 학술연구논문, 외신의 보도자료 등 다양한 최신 문헌자료들을 사용하여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테러집단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START 센터의 보고서의 IS와 보코하람의 테러조직관계분석도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재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집단의 위협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START 센터의 GTD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술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술적 분석은 2013년 동안 가장 많은 테러가 발생한 국가들을 파악하고, 이어서 2013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테러집단을 테러발생건수와 테러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들의 수를 함께 분석하여 표에 기술하였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START 센터의 GTD 데이터는 미국의 대테러정책의 일환으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주도아래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교 내의 START 센터에 의해서 공개적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의 테러사건을 정리, 데이터화한 빅데이터이다. 이 START 센터는 단일 대학 내에 설치된 연구기관이 아니라 전 미국을 아우르는 대학과 연구소들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헤드쿼터이며, 동시에 경험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소로서 운영되고 있다. 이 연구소와 컨소시엄을 이루는 연구소와 대학들의 연구결과들이 미국의 대테러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다.

## II. 살라피 지하디스트 운동의 분권화특성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한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조직들의 운동이 점차 탈-알카에다 중심화를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지하디스트 테러조직들의 특성이 점차 더 상이한 특성들을 가지는 집단들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신생 테러집단들 및 알카에다 관련 집단들뿐만 아니라 알카에다에 연계를 맹세한 핵심 연계집단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테러집단들의 탈알카에다의 경향성은 관련 집단들을 지지하는 추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유지되었던 살라피 지하디스트의 알카에다 중심화에 대해 설명하고 탈알카에다로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1. 알카에다 중심의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운동과 탈-알카에다 (decentralization of al-Qaida central)의 현상

알카에다의 활동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이 후 약 15년 동안, 알카에다의 리더인 오사마 빈 라덴은 한동안 수직적인 조직의 구조를 유지하여왔다. 1998년 오사마 빈 라덴과 다른 테러집단의 리더들이 다수의 테러조직에게 “...세계의 어느 곳에 있던 지 ...미국인들과 이들의 연합 국가들의 국민들을 살해할 것”을 명하는 파타(fatwa)를 발표하는 등 살라피 지하디스트 운동을 이끌어 왔다(Jones, 2014:p.10). 그러나 탈레반 정권이 전복되고 알 카에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피난처를 잃게 되면서 탈 알카에다 중심화의 과정을 걷게 된다. 이러한 탈중심화의 결과 4 계층의 알 카에다를 중심으로 한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들의 구분이 가능하다: 핵심 알카에다, 알카에다의 공식적 연계집단, 기타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들, 그리고 알카에다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개인추종자들과 네트워크들이다(Jones, 2014).

우선 핵심 알카에다는 주로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알카에다 조직의 리더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알카에다 공식적 연계집단은 각 집단의 에미르(emir)가 알카에다의 연계조직으로서의 맹세를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이에 따라 알카에다의 핵심 리더들이 이러한 맹세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만 알카에다의 공식 연계단체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잘 알려진 알카에다의 공식적 연계단체는 아랍 페닌슐라(the Arabian Peninsula)(예멘), 알 사바브(al Shabaab)(소말리아), 알 카이다 이슬라믹 마그레

브(al Qa'ida in the Islamic Maghreb)(알제리와 인근 국가들에 근거지를 뒀), 자밧 알 누스라(Jabhat al-Nusrah)(시리아)가 있다. 이들 단체들은 모두 지난 10여 년 동안 새롭게 형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알카에다의 공식 연계집단이었던 이슬람 스테이트 이라크와 알 샴(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al-Sham)은 알카에다의 리더들에 의해서 2014년 1월 공식적인 연계단체의 관계를 상실하게 된다. 이어서 기타 살라피 지하디스트 집단들 중 일부는 알카에다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도 있지만, 이들 집단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알카에다가 관여한 경우는 없고, 공식적인 연계집단으로서 인정받은 단체가 아니며, 각 단체들의 리더들이 알카에다의 연계를 위해 핵심 알카에다의 연계의 맹세를 하지도 않은 집단들이다. 이들 테러단체들은 독립적으로 개별 집단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테러를 감행하지만, 관심사와 목적이 일치할 경우 알카에다와 함께 특정한 테러작전을 펴거나 훈련을 받는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다. 이와 같은 살라피 지하디스트단체들은 무수히 많은데, 아프리카 지역에는 안사르 알 샤리아 리비아(Ansar al-Sharia Libya) 등이 있고, 아시아에는 제마 이슬라미야(Jemaah Islamiya) 등의 단체들이 있다. 중동의 경우 지아드 알 자라비탈리온스(Ziyad al-Jarrah Battalions) 등이 있으며, 코카서스지역에는 이마랏 카브카즈(Imarat Kavkaz)와 같은 단체들이 있다. 마지막은 알카에다와 직접적인 접촉이나 소통은 없었지만 알카에다에 의해 영향을 받고, 팔레스타인이나 아프가니스탄의 무슬림이 억압을 받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조직적 구조를 갖추지 않거나 갖추더라도 매우 미미한 수준의 개인들과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서방 세계와 무슬람국가들의 정부들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들로부터 직접적 지원 없이 아마추어의 형태로 활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들은 경우에 따라 매우 치명적인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대상들이다.(Jones, 2014).

이와 같은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들의 다양한 계층화에도 불구하고 이들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들의 이념적 목표는 크게 상이하지 않다. 이들은 대부분 근대의 무슬림은 부패하였기 때문에 초기의 무슬림의 신앙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 집단들은 살라피즘과 폭력적 지하드를 지지하여 폭력적 지하드를 무슬림의 의무로 여긴다. 즉, 아민 알 자와히리(al Zawahiri)가 2013년에 “지하드를 통하지 않고서는 무슬림이 영광을 얻을 방법은 없다”라고 발표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살라피 지하드 테러단체들은 지하드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Al Zawahiri, 2013). 또한 이슬람법의 극단적인 준수를 중요하게 여겨



서 “샤리아(shari'a)”가 모든 형태의 정부를 대체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 집단은 일반적으로 시아파 무슬림 집단인 하마스 등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고 적대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살라피 지하디스트 집단들의 탈-알카에다화는 테러의 최우선 공격대상에 대한 선정이나,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지정학적 영역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시아파 무슬림 집단에 대한 공격의 정도와 범위 등에 대해 핵심 알카에다 리더들의 의견을 따르기 보다는 집단 간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차이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우선 알카에다의 리더인 알 자와히리는 지하드를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13년 출간하였는데, 그 내용은 핵심적 테러대상에 대한 지정이 포함되어있다(AI Zawahiri, 2013). 이에 따르면, 가장 우선되는 일순위의 테러대상을 외국의 비신앙인들(무슬림이 아닌 국가들)의 리더들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국가들과 그 국민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의 테러대상이 중동지역에 기반하여 존재하는 이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국가들의 연합세력 또는 중동지역의 서구연합세력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공식적으로 공표되어있다. 그러나 탈-알카에다화 된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들은 미국 등의 서구지역의 먼 거리의 대상보다는 가까운 지역의 테러대상을 선정하여 테러를 감행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예를 들면, 북아프리카, 중동지역,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지역들에서 발생한 알카에다의 연계 집단의 테러공격이 전체 테러공격의 약 99%를 차지하여 이들 테러집단들의 테러대상이 가까운 대상에게 집중되었음을 보여주었다(Jones, 2014).

그 외에도 이슬람 국가를 세우기 위한 영토적 경계에 대한 핵심 알카에다의 지정학적 청사진이 알카에다 연계집단들과 살라피 지하디스트 집단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 알카에다의 리더 자와히리 이전부터 핵심 리더들은 남부유럽에서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의 일부분을 포함한 지역에 광범위한 이슬람의 칼리프 신정국가(pan-Islamic caliphate)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알카에다의 비전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이슬람의 칼리프 신정국가(pan-Islamic caliphate)에 대한 비전이 점차로 살라피 지하디스트 집단들이 개별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에 이슬람 칼리프 신정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바로 IS 즉 (이전의 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al-Sham)은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인 이라크 지역에서 스스로 이슬람 국가를 선포하고 이 집단의 리더인 알 바그다디가 칼리프가 되었다. 이 뿐 아니라 알카에다 이슬라

믹 마그레브(Al Qaeda in the Islamic Maghreb)역시 자신들이 장악하려는 지역(알제리, 말리, 튀니지, 그리고 리비아)에 이슬람 국가를 세울 것을 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살라피 지하디스트 집단들은 시아파 테러집단을 공격하는 것을 자신들의 테러집단의 목표로 삼는 데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핵심 알카에다의 리더와들은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의 시아파 등의 집단에 대해 공격을 한 적이 없으며, 이들 집단은 오히려 시아파에 대한 공격행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자와히리에 의하면 시아 무슬림이나 테러조직에 대한 공격은 광범위한 무슬림 커뮤니티로부터의 지지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들은 시아파의 무슬림을 비난하지만 직접적인 테러공격을 감행하지는 않아왔다. 그러나 IS, 즉 (이전의 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al-Sham)는 시아파 무슬림과 관련 단체들에 대해 매우 공격적이며 잔인한 테러행위를 적극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알 바그다디 이전이 알 자르카위의 지도자시기부터 시아파 무슬림을 적으로 간주하고 이들과 싸우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으로부터 확인이 된다. 이에 따라 IS는 시아파의 군사력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많이 감행하였으며, 현재는 시리아를 대표하는 핵심 알카에다의 연계집단인 알 누스라 역시 시아파 무슬림단체들과 전투를 벌이고 하마스와의 수차례의 교전을 벌여왔다.

## 2. 탈알카에다 중심화현상의 원인과 결과

이러한 탈 알카에다 현상이 발생한 원인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이 된다. 첫째는 알카에다를 비롯한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들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들의 강력한 대테러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알카에다 탈중심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수직적 구조의 테러단체들은 핵심 리더들이 체포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조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알카에다의 리더인 오사마 빈 라덴과 주요 리더들의 사망 이후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한 테러의 네트워크가 보다 분산된 형태를 유지하게 된 경우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테러대응국들의 강력한 테러대응정책과 테러집단의 주요 멤버들의 이메일, 핸드폰 등의 통신 등을 해킹하고 감청하는 등의 정보요원들의 활약으로 보다 많은 단체들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산된 형태로 숨어 지내거나 작은 단위의 셀이나 집단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Jones, 2014).

두 번째의 원인은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들이 점점 더 인종적, 지역적, 언어적인 특성과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성격적 특성 등, 다수의 요인들이 점점 더 상이하고 다양한 특성을 띄면서 살라피 지하디스트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지하디스트 운동이 점점 더 이 다양해지면서 동질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살라피 지하디스트 집단들이 여러 측면에서 테러활동의 목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이유로 모든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들이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테러전투와 공격을 조율해 나가기가 점차 어려워졌다.

그 외에 다른 관점에서 이와 같은 탈-알카에다의 분산된 현상이 현재의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테러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는 알카에다의 리더들과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단체들의 판단의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이는 첫 번째로 언급한 탈-알카에다의 원인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즉, 분산된 형태의 단일 단위의 테러집단들이 대테러 공격에 보다 큰 저항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단체의 판단은 시리아 출신의 살라피 지하디스트의 현자인 아부 마삽 알 수리가 지하디스트 웹사이트에 무슬림들이 개인단위의 지하드활동을 하고 테러조직들은 보다 작은 규모의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의 생각을 널리 퍼트린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탈-알카에다 중심화는,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들은 몇 가지 취약점을 가지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단위의 테러단체의 규모로서는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집단의 분권화와 분산의 경향은 탈중심화를 겪는 테러집단 간에 더욱 자주 발생할 것이며, 이 같은 작은 규모의 집단에 대한 미국과 정부들의 대테러활동이 더욱 용이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탈-알카에다 중심화, 즉 분권화는 이들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들의 전체적인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탈-알카에다 중심화는 이들 집단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동시에 살라피 지하디스트 단체들의 세력이 점차 다양화되고 개별화되면서 더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더 쉽게 재조직되고 새롭게 형성되는 등의 세력의 강화를 보여주면서 국제사회에 더 큰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이들 집단들이 가지게 될 취약성이 반대로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즉, 더 작아지고 더욱 지방분권화된 테러단체들이 더 많이 형성될 것이고, 이들 집단의 테러의 모두스 오페란디(modus operandi)나 청사진들 없이 테러활동을 감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을 찾아내

고 추격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RAND에 의해서 출간된 Jones의 2014년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의 탈알카에다 중심화를 거치면서 알카에다 핵심 연계조직 뿐만 아니라 기타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들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에서 2013년 동안 살라피 지하디스트 집단들의 수가 약 58%나 증가하였고, 살라피 지하디스트들은 2배의 수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시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특히, 알카에다 연계집단에 의해 발생된 테러사건이나 살라피 지하디스트의 수의 증가에 있어서 IS (또는 Islamic State of Iraq and al-Sham)의 관련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때 알카에다의 강력한 연계집단이었던 IS가 현재는 바로 탈-알카에다 중심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주요한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이라는 점에 있어서 IS의 역사, 활동, 위험성, 그리고 다른 테러조직과의 네트워크의 이해는 앞으로의 탈알카에다 중심화 이후의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의 활동과 위험성에 대해서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동지역에 이어서 증가되는 테러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지역이 잔인하고 위협적인 대표 살라피 지하디스트 집단인 보코하람(Boko Haram)의 테러위험성과 네트워크의 관련성을 이해하여 중동지역 이외의 아프리카지역에서의 탈알카에다 이후의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는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Ⅲ. IS와 보코하람

#### 1. IS와 보코하람의 이념적 배경, 테러활동의 특성

IS 즉, “이슬람 국가”와 테러집단인 보코 하람(BOKO HARAM)은 모두 수니종파의 살라피 지하디스트 집단으로 매우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무슬림 형제단의 이념에서 출발한 알카에다의 이념적 극단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테러단체들이다. 우선 최근에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슬람 국가(IS)는 최근에 집단의 이름을 바꾸기 전까지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더 레반트(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ISIL) 또는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ISIS) 로도 잘 알려져 있었다(Sly, Liz, 20 October 2014; The Wall

Street Journal. 12 June 2014). 이 조직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이슬람의 수니종파의 지하디스트 집단으로서 고전적 형태의 이슬람의 회귀를 주장하여왔다. 2004년 알카에다 연계집단으로 출발한 IS는 지난 10여 년간 이라크와 시리아의 많은 지역에서 테러를 감행하고 지역을 장악하였다. 현재 IS는 2014년 6월, 장악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슬람국가를 선포하고 2010년 이후 집단의 리더를 맡고 있던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Abu Bakr al Baghdadi)를 칼리프로 공표하고 IS의 장악지역에서 종교,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을 통치하고 있다(Sly, Liz, 3 February 2014; The Wall Street Journal. 12 June 2014).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IS군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붙잡아 고전적 이슬람의 원칙대로 태형을 실시하던지 필요에 따라서 공개처형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는 IS의 대항을 위해 공습을 감행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연합 국가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상태이다. 이 IS는 한 때 알카에다의 주요 핵심연계 집단이었으나, 알 누스라와의 병합문제로 알카에다와 알 누스라의 리더들과 갈등을 겪다가 결국 2014년에 알카에다가 공식적으로 알카에다 연계집단으로서의 관계를 모두 부인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게 된다(Sly, Liz, 3 February 2014; The Wall Street Journal. 12 June 2014). 알 누스라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IS의 테러단체들의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갈등을 겪은 뒤 알카에다와 결별한 IS가 탈-알카에다 중심의 지역분권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역이라는 것이다. IS는 현재 사담 후세인의 무기를 일부 확보하여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서 매우 강력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라크 일대의 감옥을 습격하여 죄수들을 석방시키는 등의 활동으로 많은 수의 테러리스트들을 모았다. 그리고 오일을 밀거래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자금으로 큰돈을 벌어들이면서 많은 수의 지하디스트 테러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ones, 2014). 미국의 CIA에 의해 추정되는 현재의 IS의 전체병력은 약 10,000명에서 30,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서구출신의 외국계 테러리스트 자원자들에 관해서는 미국과 연합국의 공습이전에는 약 3,000명 정도로 추정되었다가 공습 이후는 자신들의 국가에서 이라크와 시리아로 더 많은 수가 입국하여 현재는 약 6,000명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CNN, 2014).

이러한 IS가 더욱 위협적인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 뚜렷이 구별되는 소셜미디어의 활용을 통한 모두스 오페란디(modus operandi)이다. IS는 인터넷과 기존의 매스미디어 매체 등과 인터넷과 모바일 앱의 소셜 미디어의 다

양한 채널을 통해서 글로벌 지하디즘의 추종자들을 향한 프로파간다를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매우 큰 파급력과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START center, 2014a). 소셜미디어를 통한 프로파간다로 나타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 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계 지하디스트 추종자들이 테러리스트로 모집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외신의 보도는 IS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소셜미디어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IS의 멤버들과 직접적인 멘토링을 받게 된 유럽과 서구의 청소년 및 청년들이 불과 몇 달 뒤에 시리아와 이라크의 전투현장에서 기관총을 들고 전투에 투입이 된 사진이나 소식을 올려 다른 추종자들에게 영웅시 되고 새로운 테러리스트들을 재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START center, 2014a). 이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일세대적 알카에다 중심의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의 프로파간다나 테러리스트의 모집방식을 잇는 두 번째 세대의 알카에다 핵심 연계조직인 아랍페닌슐라(al-Qaida in the Arabian Peninsula: 이하 AQAP)의 다음세대, 즉 제 삼세대적 진보라고 볼 수 있다. 초기의 알카에다에 의한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의 활용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이며 전술이다. 이러한 충격적이고 위협적인 전략은 IS를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리고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들의 탈-알카에다 중심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IS의 행보를 바라보고 있는 극단적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들이 IS의 이슬람국가의 선포와 테러활동의 모두스 오페란디(modus operandi)를 학습하고자 하는 집단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리카에서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으로 떠오른 보코하람이다.

보코하람 역시 극단적 원리주의와 글로벌 지하디스트 이념을 표방하는 단체이다. 보코하람은 무슬림 성직자인 모하메드 유세프(Mohammed Yusuf)에 의해서 2002년에 아프리카 내에서 무슬림들이 지배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북부나이지리아에서 근거를 두고 시작되었다. 보코하람의 최초의 이름은 나이지리안 탈리반(the Nigerian Taliban)으로서 최초의 리더인 모하메드 유세프의 이념적 방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코하람은 “서구식 교육을 금지한다”(Western education is forbidden)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모하메드 선지자와 지하드의 선전에 복종하는 사람들”(Jama'atu Ahl as-Sunnah li-Da'awati wal-Jihad)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START, 2014b). 특히 최근에는 여성들의 교육을 막기 위해 이러한 교육기관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테러를 많이 감행하고 있으며, 2014년 봄에

는 약 300여명에 달하는 나이지리아 여자 청소년들을 납치해 인신매매하겠다는 위협적 공표를 유튜브(Youtube)를 통해서 발표하여 국제사회의 대응을 불러왔다. 그리고 보코하람은 서구의 영향이 아프리카에 전해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말리와 나이지리아에서의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 다른 여러 테러집단들과 연계하고 있다. 이 보코하람 역시 IS와 마찬가지로 부패하고 왜곡된 북부 나이지리아 지역의 무슬림들의 세력을 축출하고 나이지리아 전체에 걸쳐 사리아(Sharia)(이슬람 법)를 근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칼리프가 지배하는 이슬람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코하람은 매우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테러활동을 감행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충당을 위한 대부분의 활동도 납치, 강도, 그리고 지지 세력으로 부터의 강제적 재정 강탈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START, 2014b).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들의 탈-알카에다 중심화의 경향성과 관련해서 보코하람은 테러단체의 설립 초기부터 알카에다에 이념적 영향을 크게 받았고, 2010년 알카에다의 활동과 이념을 지지하고 연맹을 공식적으로 맹세하였다. 그러나 보코하람은 알카에다에 의해 핵심 연계집단으로서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최근 들어 보코하람은 자신들의 점령지역에 이슬람 국가를 선포하고 IS의 리더인 알 바그다디가 칼리프가 된 것에 더 큰 영향과 자극을 받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2014; Reuters, September, 2014).

## 2. IS와 보코하람의 위험성 분석

〈표 1〉 2013년 동안 가장 많은 테러가 발생한 국가(상위부터 총 10개 국가순위)

순위	국가	테러공격 발생 수	테러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
1	<b>이라크</b>	<b>2852</b>	<b>7046</b>
2	파키스탄	2212	2891
3	아프가니스탄	1443	3697
4	인도	690	464
5	필리핀	652	432
6	태국	477	253
7	예멘	424	622
8	<b>나이지리아</b>	<b>341</b>	<b>2003</b>

순위	국가	테러공격 발생 수	테러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
9	소말리아	331	641
10	이집트	315	243

(출처: START center GTD data 분석결과)

<표 2> 2013년 동안 가장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테러집단 (총 8개 집단순위)

순위	테러집단이름	사망자 수
1	탈레반 (Taliban)	2718
2	<b>이슬람국가(현재, Islamic State: IS 또는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Al-Qaida in Iraq: ISIL)</b>	<b>1868</b>
3	<b>보코하람 (Boko Haram)</b>	<b>1731</b>
4	알 샤바 (Al-Shabaab)	735
5	테리키 탈리반 파키스탄 (Tehrik-i-Taliban Pakistan: TTP)	710
6	알 누스라 프론트 (Al-Nusra Front)	707
7	라시카 에 장비 (Lashkar-e-Jhangvi)	404
8	알 카에다 아랍 페닌슐라 (Al-Qaida in the Arabian Peninsula: AQAP)*	368

(출처: START center GTD data 분석결과)

<표 1>나타난 기술적 분석의 결과는 START 센터의 1970년부터 발생한 전 세계의 테러사건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GTD데이터 중 2013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많은 테러가 발생된 국가를 총 10위까지 순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총 11,952건의 테러사건이 2013년에 발생하였는데, 그 중 2852건의 테러사건이 이라크에서 발생하였고, 7046명이 사망자가 발생하여 단일 국가 중 이라크에서 가장 많은 테러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건의 결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2>의 분석결과는, 이처럼 높은 이라크의 테러발생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테러집단은 바로 이슬람 국가(IS 또는 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ISIL) 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IS는 2013년 한 해 동안 1868명의 테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이는 이라크에서 발생한 총 테러사건 사망자의 약 27%에 달하는 규모이다(Rivinius, 2014).

보코하람의 위험성과 관련한 분석은 <표 1>의 높은 빈도의 테러발생국가 순위에서 나이지리아 지역이 341건으로 7위를 차지한 것과 <표 2>의 분석결과에서 2013년 동안 1731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보코하람이 3위를 차지한 분석내용을 보면 이 집



단의 폭력성과 위협성을 이해할 수 있다. 2013년 동안 전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2003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보코하람의 테러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수는 약 87%에 달하는 규모로서 나이지리아 내에서 보코하람의 잔악성, 파괴력, 그리고 위협성은 매우 극심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Rivinius, 2014).

이와 같이 중동지역과 북부아프리카 지역에서 극단적으로 위험한 테러집단들인 IS와 보코하람이 탈-알카에다 중심화를 이끌어가면서 다수의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핵심 알카에다 집단인 AQAP나 자밋 알 누스라 프론트 등의 사망자 발생 수와 비교했을 때, 두 집단의 테러위협수준보다 IS와 보코하람의 위협수준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멀지 않은 미래에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은 점점 더 지역분권화 될 것을 예측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지역분권화와 함께, 숫자가 더 많아지고, 더욱 위협적이며, 작은 규모여서 추격과 파악이 점차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들이 앞으로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 IV. IS와 보코하람의 관련 국가 및 테러조직들과의 관련성 분석

### 1. IS 의 집단과 다른 테러집단들과의 관련성에 관한 분석 (2004년부터 2014년까지)

IS와 관련된 집단들에 대한 분류는 아래의 그림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약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 이전에는 상호적 지원관계였으나 현재는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그림의 1, 2, 3번의 화살표의 집단들)이다. 둘째, 적대적 관계에 있거나 테러의 목표가 되는 테러대상/목표 집단 또는 국가들이다(그림의 4~11까지의 화살표의 집단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지원이 가능하거나 이념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협력이 가능한 관계의 집단(그림의 12번의 화살표의 집단들)으로 분류가 된다(START centner, 2014c).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 첫 번째 분류에 포함되는 테러단체들은 알 카에다, 알 누스라 프론트(al-Nusrah Front), 그리고 이란이다. 우선, 알카에다와 관련해서, IS는 원래

알카에다에 충성심을 가지고 있던 아부 무잡 알 자르카위(Abu Musab al-Zarqawi)에 의해 창설된 집단으로서 알카에다의 연계조직으로 시작하였다. 알 자르카위는 최초로 오사마 빈 라덴을 추종하면서 요르단의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알 타히드 바지하드(al-Tawhid wa-Jihad)란 단체의 설립에 관여하는데, 이 후, 2004년에 이르러 이 단체의 al-Queda in Iraq(AQI)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는 바로 IS의 전신이다(AQI의 원래 이름은 Tanzim Qa-idat al-Jihad fi Bilad al-Rafidayn이지만 AQI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때, 이름의 변경과 더불어 알 자르카위는 알카에다와 연계집단으로서의 맹세를 하고 알카에다의 연계집단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START centner, 2014c).

그러나, 알 자르카위의 사망이 후, 아부 우마르 알 바그다디(Abu Umar al-Baghdadi)가 리더가 되자, 다시 집단의 이름을 AQI에서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al-Sham: ISIS) 또는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ISIL)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이름의 변화는 이 집단의 이념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알 바그다디 이후, ISIS(또는 ISIL)는 알카에다의 리더들로부터 이 집단의 무차별적 폭력과 테러행위가 이라크 내에서의 지지기반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알카에다와 갈등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13년 알 바그다디가 자밋 알 누스라 프론트를 자신들의 소속 집단으로 공표하자 오히려 시리아 내의 알카에다의 연계조직이 될 것을 맹세한 자밋 알 누스라와의 리더인 아부 무하매드 알 자왈라니 (Abu Muhammad al-Jawlani)와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갈등관계를 중재하려 했던 알카에다의 리더 아민 알 자와히리(Amin al Jawahiri)는 알 누스라를 시리아의 공식적 알카에다 연계조직으로 인정하고 알 바그다디의 중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알카에다의 조치에 반발한 알 바그다디는 알 누스라를 공격하여 두 집단 간의 군사적 충돌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고 2014년 알 자와히리는 결국 알카에다와 ISIS(또는 ISIL)간의 모든 공식적 연계성을 부인한다는 것을 공표하게 된다(Jones, 2014).

알 누스라와의 관계는 앞서 언급한 내용보다 좀 더 자세한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원래 알 누스라는 알 바그다디가 자신의 ISIS(또는 ISIL) 집단의 소속이었던 누스라의 현재 리더인 알 자왈라니와 게릴라전에 능력이 있는 전투병력을 선발해서 시리아에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게릴라식 전투부대를 구성하여 파견한 집단이다. 이 후 알 누스라의 시리아 내에서의 활동을 위해 알 바그다디가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 누스라는 신생테러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테러집단의 위험성과 테러 활동은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적인 예로, Jones(2014)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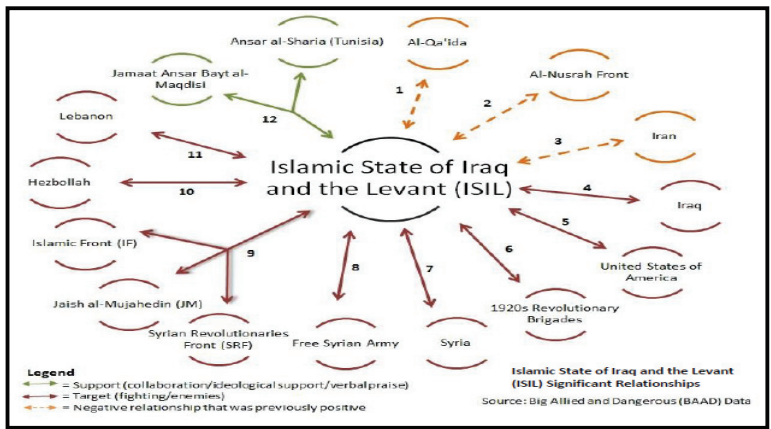
중동 분쟁지역에서 알카에다 연계조직들의 활동을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동안만 알카에다의 연계조직이 벌인 테러활동의 총 21%에 달하는 테러전투 등을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 바그다디는 이러한 알 누스라를 자신들의 ISIS(또는 ISIL)의 연계집단으로 공표할 때, 알 누스라의 리더인 알 자와라니와의 상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자 알 바그다디의 의도와 달리 알 자와라니는 오히려 알 누스라를 시리아 내의 알카에다의 연계집단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이 같은 일련의 갈등을 거치며 ISIS는 결국 2014년 초에는 알 누스라와 전투를 벌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집단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게 된다. 이와 같은 갈등의 결과로 IS와 알 누스라의 관계는 현재 서로 매우 적대적 관계이며 이러한 갈등이 견고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란의 경우, 공동의적인 미국과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이란의 정보국 (Iranian Ministry of Intelligence and Security : MOIS)이 과거 AQI의 알 자르카위의 리더쉽의 시절에 이들 집단에게 재정과 무기를 지원하고 이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축출되었을 때, 이란 내에 숨을 수 있는 안식처 즉, 피난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는 과거의 지원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알 바그다디가 이란에 대한 선전포고 등으로 인해서 이란은 반 IS 관계의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ART centner, 2014c; The Wall Street Journal. 12 June 2014).

이어서 IS와 적대적 관계에 있거나 테러의 목표가 되는 테러대상/목표 집단 또는 국가들은 이라크, 미국, 1920 Revolutionary Brigades, 시리아, Free Syrian Army, Syrian Revolutionaries Front, Jaish al Mujahedin, Islamic Front, Hezbollah, 그리고 레바논 등을 들 수 있다(START centner, 2014c). 우선 이라크정부는 2003년 이후 이 집단이 전복하고 이라크 내에서 미군을 축출하고, 이슬람법을 원칙적으로 해석하는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IS의 명확한 테러 대상 국가이다. 이에 따라 이라크 정부군과 IS는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군사적 충돌을 겪어왔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IS가 표방하는 극단적 원리주의인 살라피 지하디즘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영향을 배격한다는 점에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IS는 2014년의 미국의 직접적인 공습이 있기 이전에는 멀리 있는 적인 미국보다는 가까운 적들을 공격하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미국과 연합국가들의 공습이 시작된 현재는 IS의 특징적인 소셜미디어를 통한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미국인들과 공습에 참여한 연합국가들의 국민, 지역 등을 공격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국의 연합국

가인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와 국민들도 적대적인 관계의 국가로 분류된다.

그 외의 1920s Revolutionary Brigades는 원래 이라크 내의 미국에 적대적 테러단체 이었으나 2007년 이후, 이라크 내의 IS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협력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ART center, 2014c). 이러한 관계로 이 단체와 적대적 관계에 있다. 그리고 시리아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테러단체들, 즉, 이념적으로 갈등관계인 Assad regime in Syria 와 Free Syrian Army,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종파의 이슬람 단체들인 Islamic Front (IF), the Jaish al-Mujahedin (JM), 그리고 Syrian Revolutionaries Front (SRF) 등과 교전을 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전투를 하고 있다(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June 2014). 헤즈볼라(Hezbollah)의 경우, 이 집단이 IS 와 교전을 벌이는 Assad regime in Syria를 돕기 위해 군사력을 보냈을 때, IS와도 교전을 벌였던 경력이 있으며, 이념적으로도 IS는 부패한 무슬림이라고 비판하면서 헤즈볼라를 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레바논의 경우는 헤즈볼라가 시리아에서 IS의 활동에 관여한 것에 대해 헤즈볼라를 테러의 대상인 적으로 공표하자 IS의 공격이 시리아와 레바논의 국경지역 등으로 확장되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테러의 대상이 되었다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June 2014).



〈그림 1〉 2000년에서 2014년까지의 ISIS (또는 ISIL)와 관련 연계집단들과의 분포도에 대한 분석결과

출처: START June 2014 fact sheet: The evolution of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ISIL) relationships, 2000-2004)

## 2. 보코하람(BOKO HARAM)의 다른 테러집단들과의 관련성에 관한 분석 (1998년에서 2013년까지)

보코하람의 경우, (그림 2)의 집단의 관계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음의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 최우선적 상호적 협력관계(그림의 1, 2, 3, 9번의 화살표의 집단들), 둘째, 간접적 협력관계(그림의 8번의 화살표의 집단들), 셋째, 최우선적 테러대상/목표(그림의 7, 6번의 화살표의 집단들), 넷째, 차선적 테러대상/목표(그림의 5번의 화살표의 국가들), 그리고 다섯째 보코하람 분리단체(그림의 4번의 화살표의 집단)이다(START center, 2014b).

우선 첫 번째 분류집단들인 소말리아의 Al-Shabaab은 보코하람과 유사한 이념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며, 보코하람의 주요 멤버인 Mamman Nur에게 테러공격을 위한 훈련을 수차례 제공하였다. Al-Qa'ida in the Lands of the Islamic Maghreb (AQLIM, or AQIM) 역시 보코하람에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집단은 또한 말리 등지에서 발행한 다수의 테러공격을 보코하람과 함께 연합하여 지지하고 있는 협력적 관계이다. Ansar Al-Dine와 The Movement for Oneness and Jihad in West Africa (MUJAO) 또한 보코하람과 함께 말리 등지에서 테러를 수행하는 등 협력적 관계를 보여주었다(START center, 2014b).

두 번째의 간접적 협력관계의 집단은 Afghani Taliban과 알카에다를 들 수 있다. 이념적으로 살라피 지하디스트인 보코하람은 위의 두 집단에게서 이념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되지만, 동시에 위의 두 집단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보코하람은 2010년 공식적으로 앞선 두 집단의 활동과 이념을 지지하고 이들과의 연맹을 맹세하는 공문을 발표하여 이들 집단들과 간접적 협력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의 최우선적인 적대관계/테러대상은 바로 나이지리아 정부이다. 보코하람은 2002년 이 집단의 창건과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개시하는 2009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이지리아 정부를 전복하고 이 지역에 이슬람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정부도 군사적으로 보코하람을 공격하고 2009년 이전의 리더인 모하메드 유세프를 처형하는 등의 억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군사적 충돌을 일으켰던 아자바드 내셔널 리버레이션 무브먼트(Azawad National Liberation Movement:MNLA)는 최

우선적인 적대관계나 테러대상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말리지역에서의 테러전투에서 AQLIM, 과 안사르 알 디네(Ansar Al-Dine) 등과 함께 테러공격을 감행하면서 군사적 충돌을 하였다는 특징이 있다(START center, 201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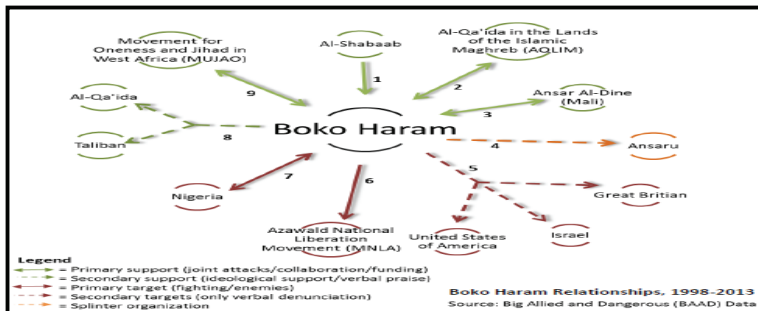
네 번째의 분류에 포함되는 차선적 테러대상/목표는 바로 미국, 영국, 그리고 이스라엘 등의 이념에 반하는 국가들이 분류된다(START center, 2014b). 서구의 영향을 배격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보코하람은 2012년 동영상을 통해 지하디스트을 선동하는 내용의 반 미국, 영국, 이스라엘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까지 보코하람에 의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공격을 발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분류에 포함되는 보코하람의 분리단체는 안사루(Ansaru 또는 Jama'atu Ansarul Muslimina Fi Biladis Sudan) 이다. 이 집단은 이념적 차이로 인해 보코하람에서 분리되었지만, 근본적인 서구의 영향의 배격이나 서부 아프리카지역에 사리아가 지배하는 이슬람국가의 건설 등의 핵심적인 내용에서는 보코하람과 차이가 없다(The American Foreign Policy Council's World Almanac of Islamism, 21, August 2013).

지금까지 IS와 보코하람의 각각의 테러조직 및 주요 국가들 간의 관계도를 살펴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은 IS와 보코하람의 관계이다. 앞서 인용된 관계도의 분류에는 이 두 집단의 관계에 대한 보고가 빠져있다. 이는 이 두 집단이 2014년 이전에는 상호간에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있었으나, 2014년 이후 IS가 이라크의 점령지역에서 이슬람국가를 선포한 이래로 최근에 들어서 보다 진전된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코하람은 2009년의 이 집단의 설립시기에 알카에다의 이념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2010년 알카에다의 활동과 이념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연맹을 맹세하였다. 이에 반해, 알카에다로부터 핵심 연계집단으로서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갖지도 않았던 보코하람은 오히려 최근 들어 IS의 이슬람국가의 선포에 더 큰 자극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근거는, 2014년 6월 보코하람의 현재의 리더 아부비카르 쉐카우(Abubakar Shekau)가 새로운 칼리프와 칼리프의 지배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이어서 2014년 8월의 쉐카우의 발표이다. 이때, 쉐카우는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의 한 지역인 그보자(Gwoza)지역을 점령했다는 것을 발표하고 보코하람으로 하여금 그보자 지역에서의 승리를 얻게 하고 그 지역에 IS 와 같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신께 감사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그리고 이어서 9월에는 IS의 전투적 전략을 표본삼아 북부 나이

지리아의 아다미와(Adamawa)와 보로노(Borno) 주를 공격하여 북부 나이지리아 지역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고 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2014; Reuters, September, 2014). 이러한 보코하람의 테러활동의 경향은 알카에다 중심의 이념적 출발에서 벗어나 IS의 경우와 같이 탈알카에다 중심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신생집단으로서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른 보코하람의 활동은 앞으로의 이 지역에서의 탈알카에다의 영향력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측된다.

## V. 논 의

2014년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의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살라피 지하디스트의 테러활동은 점점 더 치열하고 매우 위협적이 되어가고 있다.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집단에 의한 테러의 발생빈도의 수와 대인살상력, 그리고 이들의 무기의 능력과 테러리스트병력의 증가 등을 보여주어 이들이 서구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여전히 큰 위협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이 끌어져 가고 있던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운동에서 알카에다의 핵심 리더들을 중심으로 하는 알카에다의 중심의 네트워크의 운영이 약해진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더욱 주목을 끈다.



〈그림 2〉 2008년에서 2013년까지의 보고하람(BOKO HARAM)와 관련 연계집단들과의 분포도에 대한 분석결과

출처: START May 2014 fact sheet: Boko Haram recent attacks)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같은 탈-알카에다 중심화는 일견 살라피 지하디스트 집단들의 테러수행능력과 조직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이들 세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되어서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알카에다 중심의 테러조직의 질서의 변화가 대테러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정부와 국가들에게 반가운 소식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알카에다는 파키스탄, 예멘 등의 국가에 피난처를 유지하고 있으며, 테러활동을 전적으로 행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알카에다 중심의 테러조직 네트워크에서 벗어난 테러조직들은 더욱 극단적이고 잔인하며 강력한 형태의 테러전투를 이끌어 가고 있다. 실제로 알카에다 중심화의 테러네트워크가 약해지면서 더 많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고, 더 많은 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하였으며,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운동에 테러리스트로 자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탈알카에다 중심의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운동은 앞으로 어떤 위협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에 대한 이해는 현재의 탈-알카에다 중심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테러단체들은 바로 IS 와 보코하람의 테러활동과 변화된 이념적 목적, 위험성 그리고 테러네트워크의 분석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탈-알카에다 중심화를 겪는 과정 중에서도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활동은 왜 더욱 격렬해 지는 것일까? 먼저 IS와 보코하람이 활동하고 있는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북부나이지리아 지역을 살펴보면 그 지역의 정부의 통제가 약해진 상황을 들 수 있다. 특히 2010년, 아랍의 봄기(the Arab upsprings)가 발생하기 바로 전 해부터 이 지역의 정부의 지배력과 통제력을 심각하게 잃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약화가 이들 집단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IS의 경우는 이라크의 정부군의 약화로 이전 사담 후세인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를 획득하고, 시리아의 내전으로 인해 약해진 정부군으로 부터 유전지역을 장악하여 이곳에서 생산되는 오일을 암시장에 팔아서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을 운영하고 강력한 전투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많은 테러공격을 감행하고 많은 수의 사상자들을 발생시키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수의 살라피 지하디스트 군사테러집단이 이 지역에 확산되어 활동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작은 단위의 테러집단들이 실제 전투현장에서 전투를 통해 전쟁과 테러공격을 학습하고, 새로운 테러집단들이 형성되거나 약하고 경험이 적은 테러집단이 필요할 때, 서로 무기사용법이나 테러의 전술 그리고



전투의 전략 등에 대해서 서로 훈련을 시키고 필요한 노하우(know-how)를 나누는 등의 단계에 이르렀다. 또한 필요할 때 서로 지원하여 하나의 대상을 공격하는 협력적 행위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지하디스트 테러집단들의 확산은 IS가 알 누스라를 시리아에 형성했을 때나 보코하람이 형성 초기에 소말리아의 Al-Shabaab에게 테러공격을 위한 훈련을 수차례 받았던 것과, AQLIM에게 보코하람에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받은 것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보코하람은 AQLIM와 함께 말리의 정부에 대항하여 다수의 테러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IS와 보코하람의 현재까지의 활동을 근거로 예측하면, 탈-알카에다 중심의 살라피 지하디스트 테러운동은 앞으로 더욱이 더 작아지고 더욱 지방 분권화된 테러단체들이 더 많이 형성될 것이고, 이들 집단의 테러의 모드스 오페란디나 청사진들 없이 테러활동을 감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을 찾아내고 추격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변화되어가는 상황은 앞으로의 대테러 정책에 있어서 알카에다의 핵심적 리더십이나 핵심 연계조직 등의 상징적인 테러집단에 대한 전략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의 대테러정책이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내포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의 대테러정책이 전략단위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장기간의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즉, IS나 보코하람과 같이 더욱 극단적이고 근본주의적이며 폭력적인 단체들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과, 많은 수의 지하디스트 추종자들이 테러리스트로 자원하게되는 테러자원자모집의 사이클을 끊어버려서 살라피 지하디스트 운동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근절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김은영(2013). 테러집단의 범죄 집단과의 결합현상(Crime-Terror Nexu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분석연구. 한국경호경비연구, 제 37호: 85 - 108.
- 김은영(2014). 디아스포라와 테러활동: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디아스포라의 지원이 폭력적 테러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연구. 한국경호경비연구, 제 39호: 131 - 160.
- 박준석(2008). 테러대응을 위한 국가기관의 과제와 전망. 한국경호경비연구, 제 17호:157-172.
- 윤민우(2013). 계량분석을 통한 폭탄테러사건의 패턴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6호: 317-433.
- 윤민우·김은영(2012). 다차원 안보위협과 융합안보.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1호: 157-183.
- 윤민우·김은영(2013). 폭탄테러의 경향성 분석: 아프가니스탄 사례를 통한 폭탄테러 사건의 사상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경찰연구 제 12권:279-310.

### 2. 국외문헌

-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2014). *Boko Haram did not declare a Caliphate*, Washington, D.C.
- Rivinius, J. (2014). *More than half of all attacks carried out in Iraq, Pakistan and Afghanistan*.
- Jones, S.G. (2014). *A persistent threat: The evaluation of al Qa'ida and other salafi jihadists*. RAND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RAND Cooperation.
- START center. (2014a). *Transcending organization: Individuals and "the Islamic State"* Analytical Brief. START Center, Maryland.
- START center. (2014b). *Boko Haram recent attacks*. Background Report. START Center, Maryland.
- START center. (2014c). *The evaluation of 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ISIL): Relationships 2004-2014*. START Center, Maryland.

### 3. News reports

- ABC news. (2014, 10, 9). American Hostage's Mom Tweets Plea Directly to ISIS.
- Associated Press. (2014, 10 ). Australian police detain 15 to prevent attack plot.
- Ayman al-Zawahiri (September, 2013). "General Guidelines for Jihad," Al-Sahab Media

Establishment.

- CNN (2014, 8, 4). ISIS claims gains, takes control of Iraq's largest hydroelectric dam.
- Mailonline news. (2014, 10, 14). 'I am pretty scared to die... but at least I went out helping those in need': Family of American ISIS hostage release emotional letter he wrote from captivity.
- Reuters. (September, 2014). "Nigeria military says one of its warplanes missing in northeast"
- Sly, Liz (20 October 2014). "Syria tribal revolt against Islamic State ignored, fueling resentment". The Washington Post. Retrieved 20 October 2014.
- Sly, Liz (23 July 2013). "Islamic law comes to rebel-held Syria". The Washington Post.
- Sly, Liz (3 February 2014). "Al-Qaeda disavows any ties with radical Islamist ISIS group in Syria, Iraq". The Washington Post. Retrieved 7 February 2014.
- McClam, Erin (20 June 2014). "More Extreme than al Qaeda? How ISIS compares to other terror groups". NBC News. Retrieved 28 June 2014.
- The American Foreign Policy Council's World Almanac of Islamism, (21, August 2013). "Boko Haram".
- The Wall Street Journal. (12 June 2014). What is ISIS? — The Short Answer". Retrieved 10 August 2014.
-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June 2014).The War between ISIS and al-Qaeda for Supremacy of the Global Jihadist Movement". Retrieved 20 August 2014.

【Abstract】

## Decentralization from Al-Qaida central among Salafi-jihadist groups, Boko Haram and the Islamic States

Kim, Eun-Young

This research examines the decentralization of al-Qaida and other Salafi-jihadist terrorist groups, which is a subject of intense debate in the West.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status and evolution of al Qa'ida and other two Salafi-jihadist groups, Boko Haram and the Islamic States. These terrorist groups are currently considered as the most active Salafi-jihadist terrorist groups leading today's decentralization from Al-Qaida central terrorism network. This study also aims to examine the contemporary threats posed by the two extremely violent jihadist terrorist groups and these groups's terrorist network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conducted content analyses with a wide range of documents reporting about Salafi-jihadist terrorists groups. Also this study utilized GTD data set drwan from START centner to provide descriptive analyses regarding IS and Boko Haram's activities and threats. On the basis of analyses, this study argues that recently the threats posed by core al Qaida has been severely weakened. Further, the broader Salafi-jihadist movement has become more decentralized among four tiers: first, core al Qaida in Pakistan; second, formal al Qa'ida affiliated groups that have sworn allegiance to core al Qaida; a number of Salafi-jihadist groups that have committed to establishing an extremist Islamic emirate without sworn allegiance to al Qaida; third, individual followers and networks inspired by al Qaida and other Salafi-jihadist groups. In concusion and discuss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a long-term engagement counter terrorism strategy against Salifi-jihadist terrorists groups on behalf of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world society.

**Key words :** Decentralization of al-Qaida central, the Islam State(IS),  
Boko Haram, Salafi-jihadist terrorist networks,  
Terrorism in Middle East and Africa